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 농업인과 소통 강화 위해 물관리 현장설명회 개최

[손동균]

2025년 영농급수계획·수리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 실시



▲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29일 영동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지역 농업인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옥천영동지사는 29일 영동군 영동농협 본점 대회의실에서 농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영농급수 물관리 계획과 수리시설감시원 안전관리 교육'을 주제로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인의 물관리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원을 사전에 청취하는 양방향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옥천영동지사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장 설명회를 정례화하며 지역 농업인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에 힘써오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2025년 영농급수계획을 상세히 보고하는 한편 통합물관리 정책 속에서 농업용수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수리시설감시원을 대상으로 한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사고 예방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날은 수리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공사 간 협력 필

요성을 공유하며 상호 공감대를 넓혔다.

김상우 지사장은 "올해도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과의 꾸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는 체계적인 물관리와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영동=손동균기자